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
술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2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1호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취임법회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회서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 불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부대중 화합에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은 법회 참석 대중과 삼귀의례를 하고 있는 설정 스님의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독화살 공방 멈추고 一佛弟子 긍지 가꾸자"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공식 취임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스님은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 불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부대중 화합에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취임법회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종하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교역직 종무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소임자,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의원, 김희중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각 신행 · 포교단체장, 불자 등 약 1만 명이 운집해 설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국회의원은 사전에 설정 스님을 예방했다.

법회에서 설정 스님은 가장 먼저 부처님전에 헌화하며 새 행정수반으로서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종하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설정 스님의 취임을 경하하노니, 종단의 대화합과 종풍의 선양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총무원장스님은 종단내의 갈등과 분열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해 원융화합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천년불교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숲이 무성해질 때 새들도 날아오고 온갖 산짐승들이 돌아와서 원래의 자연생태계로 복원되듯이 조계종단도 수행과 청정이라는 선(禪)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종단이 국민들과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신심 · 원력 · 공심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신도숫자 감소라는 통계보다는 종도들이, 불교인들이 불제자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해 방황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독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제 우리는 독화살의 공방을 멈추고 다 같은 일불제자(一佛弟子)로서 긍지를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화합 · 단결하지 않는 집안은 힘을 잃게 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과 불찰에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선거과정뿐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로 갈등했던 분들과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겠다. 무엇보다도 대탕평 정책을 펼쳐 종도들이 환희작약(歡喜雀躍)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1일 조계사 일원서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취임법회 전경.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원
각계 인사 등 1만 대중 운집
진제 종정 "원융화합의 길로"

우정국로 불자에게 직접 나서
'無時禪 無處禪' 짧은 당부도

각계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설정 스님은 경허 ·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어받아 평생 수행에 전념한 선승이시자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며 불교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이사무애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동안 쌓아온 높고 두터운 경륜은 종단발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는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며 "한국불교는 우리사회 아픔을 가장 먼저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파사현정, 뭇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행의 불교정신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생은 정성을 다해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없고, 나의 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간결하면서도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쉽게 말씀해준다고 생각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사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종단개혁으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고희를 넘기셨음에도 종단 중책을 맡고자 하심에는 큰 뜻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것이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 나는 불교'라고 생각한다. 큰 뜻을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와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설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불교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길 기원했다.

이후 대중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간절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사회 곳곳의 아픔을 함께하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굳게 잡아 한국불교가 뭇 생명들과 아름다운 수행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직후 설정 스님은 우정국로에 모인 불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무대에 오른 설정 스님은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을 강조한 뒤 "참선 · 주력 · 염불 등으로 마음을 바꾸면 그곳에 지혜와 용기, 자비와 무한한 관용이 있단 걸 꼭 알아야 한다"면서 "신심 · 원력 · 공심이 없는 불제자는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목소리 높였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태고종 '특별사면' 단행
종정 혜초 스님 사면령

멸빈 등 징계자 모두 복권
내년 1월 29일까지 접수

태고종이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태고종은 10월 13일 태고종정 혜초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령'에 의거해 징계자 복권을 선언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9월 28일 봉행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이 · 취임 법회에서 내린 '종정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에 즈음한 유시'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1970년 태고종 창종 이래 2016년까지 종단으로부터 각급 징계(멸빈, 제적, 공권정지, 법계강등 등)를 받아 자격이 제한된 모든 태고종도가 일제사면됐다.

종정 혜초 스님은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종단이 한국불교 전통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도 화합과 종력의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종단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흩어진 종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 총화(總和)를 실현, 종단 새 질서를 창출하고자 일제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3개월간 복적(復籍) 신청을 받는다.

복적 대상은 △1970년 태고종 창종 이후 2016년 말까지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 종단에 이적했거나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승려의 자격이 제한된 피징계자 △2014년도 사찰등록증 갱신 및 승려분한 신고 불이행으로 사찰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승적이 정적된 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대상자는 △복적 신청서(소정양식) 1부 △구(舊) 사찰등록증 및 승적부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증명사진 4장 △소정의 복적 수수료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사승 또는 제자)을 통해 총무원 또는 해당 교구 종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특별사면령'과 관련 10월 25일 담화문을 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총무원장으로서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이 되겠다. 종단 발전에 함께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음식 :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기 위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
계절식재료를 사용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및 강의

운영시간 | 화~일요일 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2층
전화번호 | 02-733-4650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www.koreatemplefood.com